

“신규 해외시장 개척하고 우수성 널리 알릴 것”

휴비스 강형모 수출팀장 무역의 날 대통령상 표창

휴비스는 제55회 무역의 날을 맞아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2018년도 무역의 날 포상'에서 강형모 휴비스수출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형모 팀장은 1995년 휴비스의 모사 삼양사로 입사하여 단상유 수출

을 담당해왔고 휴비스의 대표 상품인 LMF(저용점 접착용 섬유)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 이끌어내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휴비스 LMF는 낮은 온도에서 녹아 접착용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로 2001년부터 세계일류 상



평 관세 0%를 확정 받아 미국 수출

품으로 지정되어 왔다.

특히, 작년 미국은 한국, 대만의 LMF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진행했고 올해 휴비스만 유일하게 반덤

에 날개를 달았다.

세계적인 화학기업 인도라마 벤처스와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설립 중에 있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형모 수출팀장은 “휴비스의 섬유 소재를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고 그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휴비스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매년 수출 증대에 매진한 기업들과 유공자들을 치하하기 위해 수출의 탑 수여,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휴비스 이영근 팀장 (02-2189-4631), 문희 부장 (02-2189-462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남원축협, '올 해의 청년 농업인상' 손민성 선정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정례조회에서 '올해의 청년 농업인상' 수상자로 손민성씨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청년 농업인상은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농협중앙회장이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하는 정예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신설되어 2017년에 15명 시상했고 올해 각 분야에 18명이 선정됐다.

손민성씨는 청년 후계농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협과 함께 축산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신념으로 각종 축산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스마트 정보 활용과 유전력이 좋은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

한편, 남원축협은 분점 옆에 축산 후계농 정보센터를 개설, 후계축산인의 사랑방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젊은 농·축산인 육성을 통해 농촌의 활력화를 유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워킹맘 애 많고 어릴수록 '먼 애기'

미취학 자녀둔 48.1%만 취업

주당 취업시간 평균 37.2시간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 적었다.

워킹맘이더라도 절반 가량이 월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통계청은 7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자녀별 여성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15~54세 기준 여성은 900만5000명(62.5%)이었다.

15~54세 기준 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은 506만3000명(56.2%)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1.9%)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낮았다.

자녀 수가 1명인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57.9%였다. 그러나 자녀 수가 2명(56.2%), 3명 이상(52.1%)으로 늘수록 고용률은 하락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자녀 1명(0.0%)을 제외하고 고용률이 2명일 때 0.6%포인트, 3명 이상인 경우 2.8%포인트 높아졌다.

또 자녀 나이가 6세 이하인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48.1%에 그쳤다.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의 절반 가량이 일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는 얘기가.

7~12세(59.8%)와 13~17세(68.1%)를 둔 여성의 고용률에도 한참 뒤진다.

1년 전과 견주면 7~12세의 자녀를 둔 엄마의 고용률은 0.3%포인트 줄었고, 6세 이하(1.7%포인트)와 13~17세(0.3%포인트)에서는 소폭 늘었다.

워킹맘이 종사하는 산업은 육아 병행이 보다 수월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2.2%·150만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24.1%·67만7000명)에 몰려 있었다. 주로 간호사, 간병

인, 학원강사, 식당 서빙, 주방 보조 등 저임금 직업이 포함된 산업이다.

워킹맘의 주당 평균 취업(근무)시간은 37.2시간이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짧았다.

자녀 나이가 6세 이하인 경우 주당 평균 33.9시간, 7~12세면 평균 38.4시간을 일했다. 자녀 나이가 13~17세가 돼야 평균 40.2시간을 일해 '주5일 40시간 근무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연령이 됐을 때가 기존 여성이 경력 단절을 완전히 극복하고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한 시점인 셈이다.

워킹맘의 절반 가량(49.1%)은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됐다.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준 여성의 37.6%(85만9000명)이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100만원 미만'은 11.5%(26만3000명)였다.

'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은 25.3%(57만8000명)였고 월 300만원 이상 받는 워킹맘은 25.6%(58만6000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제주도가 73.3%로 가장 높았다. 제주의 경우 고용 진입장벽이 낮은 관광산업과 농림·어업이 활발해 여성 취업자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다만 1년 전보다는 3.5%포인트 낮아졌다.

제주 다음으로 전라남도(60.1%), 강원도(59.9%), 대전시(59.8%), 충청북·남도(각 59.7%) 등의 순이었고 울산시(49.7%)가 유일하게 50%를 밑돌아 가장 낮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자녀 수가 많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케어(돌봄)해야 할 시간이 늘어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적었다”며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짧은 시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주제: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아름다운 농촌 풍경, 농



전북농협이 지난 6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사랑!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에 시상식을 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 일깨운다

전북농협, 농촌 사랑 어린이 그림 공모전 시상식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6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사랑! 어린이 그림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 관련 그림을 공모한 결과 491여건이 접수됐다.

공모전은 전문가의 본선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우수 학생 10여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참가한 어린이들의 작품 전시회는 12월 말까지 1층 로비에서 펼쳐진다고 전했다.

전북농협에서 개최한 이번 그림 공모전은 '농업·농촌이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의 주제로 농업·농촌과 관련된 그림을 공모한 결과 491여건이 접수됐다.

공모전은 전문가의 본선심사를 거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우수 학생 10여명을 선정했다.

공모전 대상은 권시형(원주송광초등학교4학년), 뒤이어 최우수상엔 김다

현(전주인후초등학교1학년) 학생이 영광의 수상을 안았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농업·농촌이 주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 선도 '앞장'

농신보전북, 위탁금융기관 워크숍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센터(이민호 센터장)는 지난 4일 벽계기든 2층에서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 등 여신담당자 및 책임자 30여명을 대상,

워크숍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농신보 보증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탁금융기관 실무능력향상과 2018년 제도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센터 중심의 워크숍을 통해 농신보 보증활성화를 위한 상호토론을 했다. 전

북관내 3개 보증센터(전북·정읍·남원)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개인, 법인)에 대해 10월말 현재 누적 6만9천여건, 순신규보증 4,777억원, 보증잔액 1조8,500백여원을 전북관내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통해 농어업인에게 지원하여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농촌활력화 교류 미용재능나눔의장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임실군 지부(지부장 이승계), 오수관촌농협(조합장 김학운)은 지난 7일 임실군 대정마을과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와이엔제이푸드(대표이사 최수영)를 마을로 초청, 주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전북이미용봉사단(단장 박보라) 소속 미용사 4명 등이 마을을 찾아 마을회관에서 농촌 어르신과 마을 주민 대상으로 커트, 펌, 염색 등 미용봉사도 하여 행복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진두 임실부군수, 조인갑 전북농협본부장, 이승계 임실지부장, 김학운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최수영(와이엔제이푸드대표이사, 오보영 대정마을이장, 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여, 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승계 임실군지부장은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대정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을 찾아 마을주민들과 도농교류활동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어준 (와이엔제이푸드(대표이사 최수영)와 미용봉사로 농촌 어르신들 머리를 손질해 주신 봉사단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